

방언의 국어교육적 의의

강 영 봉*

차 례

1. 머리말
2. 방언의 개념과 기능
 - 1) 방언의 개념
 - 2) 의사소통 도구로서 방언
 - 3) 문학 표현 수단으로서 방언
 - 4) 국어사 보강 자료로서 방언
 - 5) 민속문화유산 보존 수단으로서 방언
3. 제주도의 방언 교육
 - 1) 교육 자료의 구성
 - 2) 문제점
4. 마무리

1. 머리말

지금과 같은 다원화 시대에는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표준어 정책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표준어 교육은 비판의 대상이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 지방화 시대는 그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방언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방언은 그 방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사상, 감정 등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 언어다.

이 글은 방언의 개념과 그 기능을 확인함으로써 방언 교육의 필요성, 방언의 교육적 의의를 찾으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07년부터 제량 활동 시간을 통하여 실시하는 <제주어 교육>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도 살펴보려고 한다.

2 방언의 개념과 기능

1) 방언의 개념

이익섭의 《방언학》(1984: 11~12)에 따르면, 방언은 국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언어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경기도방언, 강원도방언, 전라도방언, 경상도방언, 충청도방언 그리고 제주도방언 등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가 곧 국어라는 것이다. 방언의 총화가 국어인 셈이다. 이때의 방언은 '표준어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보다 못하다든가, 세련되지 못하고 규칙에 엄격하지 않다 등 어떤 나쁜 평가를 동반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방언의 개념에서 하나 조심할 것은, 모든 방언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주도방언이라면 표준어에는 없고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제주도 특유의 언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표준어에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 토박이들이 대대로 써 오는 입말은 현실 언어로서 제주도방언이라는 것이다.

2) 의사소통 도구로서 방언

의사소통의 원칙 가운데 '상황의존의 원칙'이 있다. 이는 언어 사용에서 일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언어 사용은 그 주어진 상황과 잘 맞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일 주어진 상황에 어그러진다면 "말이 안 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 하여 오해하고 심하면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 누구와, 무슨 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의 형태를 약간씩 바꾼다. 곧 언어 사용의 용도에 따라 말의 모양을 알맞게 바꾸게 마련이다. 이런 말 바꿈은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적합한 관용 표현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투나 화계(話階) 곧 말의 등급을 달리하기도 한다.

가령, 제주도방언에는 선어말어미 ‘-시-’에 의한 주체높임이 없다. 반면, 일정한 종결어미를 선택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높임은 ‘히려체, 햐여체, 햐서체’ 등 3개의 체계로 되어 있음도 제주도 상황에 맞는 말의 등급이다.

- 진술문: 밥 먹엄저.(히려체), 밥 먹엄서.(햐여체), 밥 먹엄수다.(햐서체)
- 의문문: 밥 먹엄나?(히려체), 밥 먹엄서?(햐여체), 밥 먹엄수강?(햐서체)
- 명령문: 밥 먹으라.(히려체), 밥 먹어.(햐여체), 밥 먹읍서.(햐서체)
- 감탄문: 밥 먹네.(히려체)
- 청유문: 밥 먹자.(히려체), 밥 먹주.(햐여체), 밥 먹읍주.(햐서체)

3) 문학 표현 수단으로서 방언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특히 소설 문학이 현실과 삶을 반영하고 있는 한 작품 무대가 되는 지역과 등장 인물의 성격 묘사를 위해서는 출신 고향의 언어 사용은 불가피하다.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다 서울에 간 할머니의 대화는 제주도방언일 수밖에 없음은 현기영의 <순이삼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국어원의 전자파일에서 인용한 것으로, 문장 부호 「 」(낫표)를 “ ”(큰따옴표)로 바꾸었다.).

“조캐, 참말 이럴 수가 있잉가?”

삼촌의 눈에선 눈물마저 글썽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나는 영문도 모르고 가슴이 섬찔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앉아서 차초지종을 얘기해 보세요.”

평소에 순이 삼촌 앞에서는 고향말을 써야지 하고 생각하던 터라 무의식

중에 툇 튀어나온 서울말이 무척 민망스러웠다.

“동네 사람들이 날 숭보암서라. 새로 온 민기네 집 식모는 밥 하영(많이) 먹는 제주도 할망(할미)이엔 소문 나서라.”

나는 하도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어이가 없었다.

“아니, 누게가 그런 쓸데없는 소릴 험디까?”

“허기사 고향서 굿은 일, 쌍일을 허멍(하면서) 보리밥 한 사발 고봉으로 먹던 버릇 때문에 아멍(아무리) 밥을 적게 먹제 해도 공기밥 먹는 조캐네들 보다사 하영(많이) 먹어지는 게 사실이쥬. 사실이 그렇덴 해도 밥 하영 먹는 식모엔 사방팔방에 놈(남)한티 소문내는 뻬이 어디 있이니?”

나는 순간 눈망울이 확 더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삼촌보고 밥 많이 먹는 식모라니, 이런 모욕적인 언사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도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었다.

“누게가 그런 말을 험디까? 어디서 들음디까?”

그러나 삼촌은 치마귀로 눈물을 짖어낼 뿐 통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많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손뚝뚝음 속에 현대어를 함께 적는 문제, 시(詩)에 주석을 다는 문제 등 독서의 효율과 리듬을 깨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는 작품성으로 얼마든지 극복될 일이다. 최근 들어 제주도방언으로 시를 쓰는 몇몇 시인이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4) 국어사 보강 자료로서 방언

이기문은 《국어사개설》(1998: 14)에서 “현대의 여러 방언은 국어사 자료의 산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언학은 국어사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행하는 것이다. 문헌 자료에 의한 국어의 역사는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 중앙 방언의 그것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의 국어사는 그 모든 방언의 역사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므로 방언학은 국어사의 시야를 크게 확대해 준다. …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이것은 빈약한 문헌 자료의 결함을 보충해 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 하여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방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계림유사》의 ‘鰓曰必’은 제주도방언 ‘비바리’ 등의 어휘를 통하여 ‘비,

빗'이 '전복'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책의 '梳曰菘音必'에 따라 '鰓曰必'의 '必'을 [빗]으로 읽을 수 있고, 《한자고음사전》(아세아문화사, 1975: 220)에서도 '必'의 음을 [pi/ pit/ piët]으로 읽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제주도방언 어휘에서도 '빗'이 '전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빗창: 전복을 따는 데 소용되는 도구.
- 암핏: 전복의 암컷.
- 수핏: 전복의 수컷.

이밖에 지명으로 '수핏여, 빗여' 등이 있다. '수핏여'는 '수핏' 곧 수컷 전복이 많이 서식하는 여라는 뜻으로, 예전의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의 바다 이름이고, '빗여'도 전복이 많이 서식하는 여라는 뜻으로, 제주시 도두동과 예전의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의 바다 이름이다. '비바리'의 '비'가 전복을 뜻하니, '비바리'는 사람을 나뻘 부르는 접사 '-바리'가 연결되어 '전복 따는 사람을 나뻘 부르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변하여 '처녀, 아가씨'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5) 민속문화유산 보존 수단으로서 방언

민속문화란 서민 사회에 전승되는 기층 문화 또는 전통 문화로, 구비 전승, 신앙 전승, 의식·행사 전승, 기예 전승 따위를 말한다. 이 가운데도 구비 전승은 기층 문화의 대표격으로 설화·민요·무가·속담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서민이 사용하는 언어인 방언으로 구연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곧 그 지역의 특징이 드러나는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기층 문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 제주도의 민속문화의 대표격인 무가, 민요, 설화 등은 모두 제주방언으로 이루어진다.

(7)

새물로 새양아 원물로 원양아(새물[邪物]로 새양[邪殃]아 원물로 원양아)

새물로 드리자 원물로 드리자(새물로 쫓아 버리자 원물로 쫓아 버리자)
 어느야 물에사 새 아니 놀멍(어느 물에 새가 아니 놀며)
 어느야 물에사 용 아니 노리까(어느 물에 용 아니 놀겠습니까)
 지퍼야 물에는 용이나 놀고(깊은 물에는 용이 놀고)
 야퍼야 물에는 새 앓아 노는고(얕은 물에는 새가 앓아 노는구나)
 요 새를 드리자 저 새를 드리자(요 새를 쫓아 버리자 저 새를 쫓아 버리자)
 쌀 그려 우는 새 배고파 우는 새(쌀 그리워 우는 새 배가 고파 우는 새)
 목 몰라 우는 새 물 그려 우는 새(목 말라 우는 새 물이 그리워 우는 새)
 쌀 주며 드리자 물 주며 드리자(쌀 주며 쫓아 버리자 물 주며 쫓아 버리자)
 주어나 훨쭉(주어나 훨쭉)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528~529면)

(ㄴ)

죽영 가면 썩어질 꿩기(죽어 가면 썩어질 고기)
 산 때나 미영 놈이나 궤라(산 때 움직여 남이나 괴어라)
 미정 꿩정 밥 줄 인 셔도(밭든 귀엽든 밥 줄 인 있어도)
 미정 꿩정 옷 줄 인 웃다(밭든 귀엽든 옷 줄 인 없다)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15면)

(ㄱ)은 초감제에 나오는 ‘새드림’의 사설 일부분이고, (ㄴ)은 방아노래의 사설 일부분이다. 이 사설을 (ㄱ) (ㄴ)의 손톱뭉음 속과 같이 표준어로 옮겼다고 해서 제주의 민속문화유산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제주도방언으로 표기 되었을 때만 제주민속문화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제주 사람들의 정신 세계의 반영이니 제주의 전통성이니 하는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3. 제주도의 방언 교육

1) 교육 자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3월 ‘재량 활동 시간’에 사용할 교

육 자료로 <제주어교육자료>를 제작,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7시간으로 제주도 특징이 드러나는 민속 문화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학교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육 내용

초등학교 교육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제주의 생활 모습(음식·옷·집·생활 모습), ②제주의 자연(동·식물), ③제주의 설화(4편) ④기타(속담·관광지·마을)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 01차시: 제주의 생활 모습-우리 주변의 음식
- 02차시: " -우리 고장의 옷
- 03차시: " -우리 고장의 집
- 04차시: "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
- 05차시: 제주의 자연-제주의 식물(1)
- 06차시: " -제주의 식물(2)
- 07차시: " -제주의 동물(1)
- 08차시: " -제주의 동물(2)
- 09차시: 제주의 설화-설문대할망 이야기
- 10차시: "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이야기
- 11차시: " -명의 진국태 이야기
- 12차시: " -오찰방 이야기(1)
- 13차시: " -오찰방 이야기(2)
- 14차시: 제주어는 내가 최고-제주어 속담
- 15차시: " -제주의 관광지
- 16차시: " -제주의 마을 여행(1)
- 17차시: " -제주의 마을 여행(2)

<예시>

단 원: 4. 제주어는 내가 최고

차 시: 14/17

교 사:

제 재: 제주어 속담

수업 형태: 전체, 모둠, 개별 활동

시 간: 40분

학습 자료: CD자료, 학습지, 골든벨판, 보드마카, 지우개

도 입: 마음 열기/학습 목표 확인

- 그림을 보며 알맞은 속담 생각해 보기
 - 무슨 내용일까요?
 - 그림에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이 있을까요?
 - 그림에 어울리는 제주어 속담은 무엇이 있을까요?
 - 기시린 도새기 드라멘 도새기 타령한다.
- 공부할 문제를 알아보고 인지하기
 -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
 - 제주어 속담을 알아 봅시다.

전 개: 속담 알아보기/상황 연출하기/편지쓰기

- 제주어 속담 알아보기
 - 속담 알아보기
 - 쌔 잡아먹을 간세한다.
 - 기시린 도새기 드라멘 도새기 타령한다.
 - 멜도 배설 싣나.
 - 입으로만 꿩이여 메여.
 - 아니 짚은 굴묵에 네 나라?
 - 속담에 쓰인 제주어 알아보기
 - 소리내어 읽어보기
 - 뜻 이해하기
- 속담이 쓰이는 상황 연출하기
 - 모둠별 속담이 쓰이는 상황 연출하기
 - 속담에 알맞은 제주어를 사용하여 상황 만들기

- 속담이 들어간 짧은 글짓기하기
- 제주어 속담이 들어간 짧은 글짓기하기

정 리: 학습 내용 정리

- 학습 내용 확인하기
 - 제주어 속담 퀴즈 풀이
 - 차시 예고

(2) 중학교 교육 내용

중학교는 ①말하기·듣기, ②문학(설화·시), ③민요로 구성되어있는데, 단원 말미에 '쉬어 가는 마당'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 유발을 유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 내용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I. 말하기·듣기(1~4)

1. 영화의 한 장면
2. 시장에서의 대화
3. 관광지에서의 대화
4. 해녀와의 대화

▷쉬어 가는 마당

II. 문학-설화(1~5)

1. 자청비 이야기
2. 날개 돋은 아이
3. 은혜 갚은 개구리
4. 출천지효(出天之孝)

▷쉬어 가는 마당

5. 맹관(명관)이야기

▷쉬어 가는 마당

III. 문학-시(1~6)

1. 벚림구덕
2. 제주도 할망 정신

▷쉬어 가는 마당

3. 어영 마을 바다 풍경

▷쉬어 가는 마당

4. 제주의 여름

5. 몰마농꽃

▷쉬어 가는 마당

6. 뚜럼

▷쉬어 가는 마당

IV. 민요(1~3)

1. 북제주 '양태걸은 소리'

2. 북제주 동요 '옛날 뒷날'

3. 아이 재우는 소리(자장가)

▷쉬어 가는 마당

참고 자료

<예시>

1. 영화의 한 장면

§학습목표

1. 사람과 관련된 제주어 어휘를 알 수 있다.
2. 영화의 한 장면을 제주어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교수 학습 과정안

교과명: 중학교 재량 국어

학 년: 전학년

시 간: 45분

단원명: 말하기·듣기

학습 주제: 영화의 한 장면

도 입:

◦ 인사

- 맛보기-‘웰컴 투 동막골’의 대사를 제주어로 바꾸어 보기

전 개:

- 낱말 익히기-사람과 관련된 어휘 알아보기
- 영화의 한 장면을 감상하기-‘왕의 남자’의 한 장면
- 영화의 한 장면을 제주어로 바꾼 대사로 읽어보기
- 표준어로 된 대사와 제주어로 된 대사를 들었을 때의 느낌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 화면에 맞추어 제주어 대사로 더빙해 보기
- 제주어로 더빙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이야기하기

정 리:

- 낱말 익히기, 복습하기

차시 안내:

- 시장에서의 대화를 표준어로 바꾸어 말하기

§제주어 교육

<웰컴 투 동막골>의 다음 장면의 대사를 제주어로 바꾸어 보자.

-강원도: 뭘 사람이 아는 체를 그리 해요? 낮쪽에 짝대기는 들이대고…….

-제주도: 무시겨 경 아는체 험수광? 늦에 낭쟁인 갖다 붙여가멍.

-강원도: 얼마 전에 하늘에서 몸뚱이 지단계 하나 툅 떨어져서, 가이 약 구하러 다녀요. 아이들처럼 막 살라해서 동막골인데, 내막은 나도 잘 몰라요.

-제주도: 요작기 하늘에서 엄블랑ㅎ계 큰 게 하나 떨어정계만은, 가이 약 구ㅎ래 땡점수다. 아이들추룩 막 살랜ㅎ영 동막골인데 그 내력은 나도 잘 모르쿠다.

-함경도: 이쪽으로 날래 피하라우!

-제주도: 이착더래 혼저 피하라!

-강원도: 근데 있잖아, 자들하고 친구냐?

-제주도: 겐디이~ 자이네ㅎ고 친구?

- 강원도: 도대체 왜 자꾸 감자만 먹이는 거야, 누구 영어하는 사람 없어?
- 제주도: 아 무사 영 감자만 먹으랜 호멘? 영어 흘 줄 아는 사람 어시냐?
- 강원도: 스미스요? 그럼 성이 '스'래요? 스씨도 다 있나?
- 제주도: 스미스마썸? 계민 성이 '스'팡? 스씨도 이수팡?

§날말 익히기

◦ 사람과 관련된 어휘를 알아보자.

- *맹인 - 봉스
- *거지 - 동녕바치
- *병어리 - 버버리
- *쌍둥이 - 굴루기
- *까불이 - 출랑생이
- *말더듬이 - 다도악이
- *질투쟁이 - 개움다리
- *게으름뱅이 - 간세다리
- *결혼한 여자 - 냉바리
- *의문스러운 사람 - 균움다리

(3) 고등학교 교육 내용

고등학교의 자료 구성 내용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 01차시: 제주어의 특징과 제주어 보존의 필요성
- 02차시: 농업 관련어로 즐기는 제주어
- 03차시: 수산업 관련어로 즐기는 제주어
- 04차시: 속담으로 즐기는 제주어(1)
- 05차시: 속담으로 즐기는 제주어(2)
- 06차시: 수수께끼로 즐기는 제주어(1)
- 07차시: 수수께끼로 즐기는 제주어(2)
- 08차시: 민요로 즐기는 제주어(1)
- 09차시: 민요로 즐기는 제주어(2)
- 10차시: 설화로 즐기는 제주어(1)

- 11차시: 설화로 즐기는 제주어(2)
- 12차시: 제주어로 대화 나누기
- 13차시: 음식 어휘로 즐기는 제주어
- 14차시: 제주어로 이야기 꾸미기(1)
- 15차시: 제주어로 이야기 꾸미기(2)
- 16차시: 대중가요를 제주어로 바꿔 부르기
- 17차시: 문학 작품을 제주어로 바꿔 표현하기

<예 시>

수업 단원: 농업 관련어로 즐기는 제주어

차 시: 2/17차시

일시 및 대상 학급: 고등학교 전학년

수준별: 공통

장 소: 각 학교별 활동

수업 목표: ①농업 관련 제주어 어휘들을 이해할 수 있다.

②제주지역의 전통적인 농업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지도 상의 유의점: ①구체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탐라문화재 민속공연 영상자료)와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②O, × 퀴즈 또는 질문지(학습지)를 통한 방법으로 수업을 흥미 있게 전개한다.

도 입: 전시 학습 확인/수업안내 및 학습 목표 제시

• 제주어의 특징을 다 함께 말해 본다.

① 말이 짧다.

② 대부분 줄임말로 되어 있다.

③ 어미에 ‘시’가 많이 붙는다.

④ 조선시대의 아래 아(·)가 발음상에 남아 있다.

• 학습의 필요성: 과거 전통적인 제주의 생활문화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잠시 설명해 준다.

• 학습목표 제시

1. 농업 관련 제주어 어휘들을 이해할 수 있다.
2.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농업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그 명칭을 제주어로 말해 보도록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습지를 이용해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전 개:

농업 관련 제주어 어휘들을 말해 보자.

1. 농작물

솔오리/솔보리 - 쌀보리

모몰/모멸/모물 - 메밀

대죽/대축 - 수수

지슬/지실 - 감자

마농 - 마늘

곶대산이/대산이/송게마농/송게비/송개마농 - 마늘

괘마농/뽕이마농 - 쪽파/파

쇄우리/쇄우리 - 부추

멘네/멘헤 - 목화/면화

조코고리 - 조의 이삭

꽤/꽤 - 깨

2. 농기구

굴채 - 삼태기

굴쟁이/굴각지/갈게 - 호미

호미/낫 - 낫

쇄스랑/쇄시랑 - 쇠스랑

ㄱ래 - 맷돌

나대/나데/메호미 -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

- 망탱이/맹탱이 - 떡(떡서리), 망태기
- 마깨/방망이/방맹이 - 방망이
- 질매 - 길마
- 잠대/쟁기 - 쟁기
- 곰방이/곰뱅이 - 곰방메
- 당그네/불당그래 - 고무래
- 푸는체 - 키
- 부랭이 - 수소
- 밭갈체 - 밭을 갈 수 있는 소

• 전통적인 농업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 리: 형성평가/차시예고 및 과제 부여

1. 거름 낼 때나 감지, 지실들을 담아서 나르는 도구는?(=골체)
2. '빙떡'을 지저 먹는 데 사용하는 곡식은?(=멥쌀/모밀/모물)
3. 밭을 갈 때 사용하던 도구는?(=잠대/쟁기)

• 차시 예고 및 과제 부여

☞ 수산업과 관련된 제주어 조사해 오기

2) 문제점

재량 시간에 활용할 자료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제주도방언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회를 거듭하면서 자료의 내용은 새롭고 알차게 구성될 것이다. 수록 내용 또한 상황에 따른 입말 중심, 현실 언어 중심으로 교체될 것을 기대한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앞날을 기약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표기법과 발음 문제다. '아래아'가 남아 있다고 해서 아무 어휘에나 '아래아'를 쓴다거나 '있다'를 '있다'처럼 'ㅅ'을 받침으로 쓰거나 하는 것은 잘못이다. '외'도 복모음으로 발음되므로 당연히 '웨'로 표기해야 옳다. 《제주어사전》 부록의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것이다.

또 '아래아'가 쓰인 어휘가 있으면 '아래아'의 발음 즉, 후설 저모음으로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오'보다 혀를 더 뒤로 한 후 혀를 좀더 구부려 발음하면 된다는 이론상의 원칙이라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대화 중심의 자료 구성이 아쉽다. 방언은 현실 언어로 입말이 중심이다. 그런데 교육 자료 대부분은 화석화된 제주도방언에 치중하고 있다. 화석화된 방언 중심으로 교육 자료가 구성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 유발은 물론 동기 부여라는 방언 교육의 목표는 자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상황 설정이 된 이운금의 《제주도사투리》(1965, 박문출판사)를 이용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산다
2. 길을 묻는다(1)
3. 길을 묻는다(2)
4. 차편을 묻는다
5. 구두를 닦는다
6. 訪問(1)
7. 訪問(2)
8. 식당에서
9. 농부와
10. 해녀와
11. 민요를 듣는다
12. 전설을 듣는다
13. 少女의 대화
14. 할머니와 손자
15. 회화를 위한 간단한 語法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길을 묻는다(1) 【서로 높임 사이】

날 봅서. 말 흐끔 물으쿠다.(여보세요. 말 좀 묻겠습니다.)

예, 무슨 말이우파?(예, 무슨 말입니까?)

저, 이딜 어디엿 흠네까?(저, 여기를 어디라고 합니까?)

이딘 동문통로타리마썸.(여기는 동문통로타리입니다.)

관덕정 앞데레 가쟁 흐민 어떻 가민 뤼코마썸?(관덕정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예, 이레 옴서. 저디 서쪽에 옛날 집 봐점수게 양. 그게 관덕정이우다.(예, 이리 오십시오. 저기 서쪽에 옛날 집 보이지요 네. 그게 관덕정입니다.)

예, 고맙수다. 기영흐고 삼성혈레레 가쟁흐민 어디로 가민 가집네까?(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성혈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삼성혈마썸? 관덕정 마당에 가민 교통대가 싯수다. 그디서 남쪽데레 쪽 올라가민 봐집네다.(삼성혈입니까? 관덕정 마당에 가면 교통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쪽으로 쪽 올라가면 보입니다.)

기냥 굿작 가민 가지카마썸?(그대로 곧장 가면 가질까요?)

예, 굿작 가당 보민 왼쪽에 막 늙은 소낭덜 하영 신 디 바레여질 거우다. 바로 그디주마썸.(예, 곧장 가다 보면 왼쪽에 아주 늙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 데가 보일 것입니다. 바로 거기지요)

기영흐민 멧분이나 걸으면 뤼코 예?(그러면 몇분이나 걸으면 될까요?)

흔 십분 걸릴 거우다.(한 십분 걸릴 것입니다.)

예, 관광호텔은 어디 서마썸?(예, 관광호텔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앞이우다.(바로 그 앞입니다.)

고맙수다. 일 봅서.(고맙습니다. 일 보십시오.)

(※표기는 책에 따른 것임)

셋째는 설명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중학교 자료에서 하나만 예를 들 어보자. ‘날말 익히기’(앞 16면 참조)에 ‘냉바리’란 어휘가 나온다. ‘결혼한 여자’란 뜻으로 풀이한 ‘냉바리’는 ‘비바리’에서 유추한 해석인 듯하나 이는 잘못이다. 제주어 조사를 해봐도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어휘로 ‘냉바리’가 등장하지 않는다. 간혹 ‘늙은 여자 가운데서도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냉바리’라 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속어여서 ‘냉바리’를 결혼한 여자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넷째 문학작품을 제주도방언으로 바꾸는 말장난은 삼갈 일이다. 특히 고등학교 자료인 경우가 심한 편이다. 모 가수가 부른 '어머나' 정도는 가사를 바꿔 부르기로, 언어 유희로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박재삼의 '일월 속에서'나 고전 작품 '가시리' 등은 제주도방언으로 바꾸는 것은 문학작품이 지닌 제 맛을 떨어뜨리는 일에 속한다. 특히 시는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삼갈 일이다. 차라리 제주도방언으로 쓴 시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고(실제는 제주 작가의 제주도방언으로 쓴 시 5~6편이 들어가 있음), 고전 작품은 "어휘 가운데 제주도방언과 비슷하거나 같은 어휘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래아가 들어간 어휘를 발음해 봅시다."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고등학교의 '전통적인 농업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제주인의 의식을 이야기한다.' 등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4. 마무리

다원화 시대일수록 방언 사용과 방언 교육은 필요하다. 방언 사용으로 지역적 연대감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 이해와 정체성 확인에도 방언은 필수적이다. 입말, 현실 언어로서의 방언이야말로 지역 정서를 온통 드러내 보이는 수단이다.

학교나 공공 생활에서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방언을 쓰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상 생활에서 방언 사용을 생활화한다면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는 언어 사용이 될 것이며, 방언의 보존과 전승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핵심어: 방언, 방언교육, 입말, 방언교육 자료, 전승, 보전

<참고문헌>

- 강정희(2001), <소설 속에서 만난 낮선 제주방언>, 《문학과 방언》, 역락.
- 김동윤(2000),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방안>, 《탐라문화》2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 김수업(2001), <지역 언어 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13, 국어교육학회.
- 김주선(2001), <국어교육으로서의 방언 교육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우(1994), 《언어와 의사소통》, 한신문화사.
- 송상조(1994), <제주도방언 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율적인 방안>, 《교육제주》84, 제주도교육청.
- 윤천탁(2003), <방언의 국어교육적 의의>, 《청람어문교육》27,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개정판), 태학사.
- 이상규(2004), 《국어방언학》, 학연사.
- 이운금(1965), 《제주도사투리》, 박문출판사.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임철성(2001), <지역어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13, 국어교육학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7), 《제주어교육자료》(CD자료,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 현평효(1979), <제주도방언과 국어교육>, 《교육제주》39, 제주도교육청.

<Abstract>

Importance of dialects in terms of teaching Korean language

Kang Young-bong

Dialects, as practical languages, are so important. Therefore, here, it is emphasized that dialect education is required because dialects are ways of communication, expressions of literature, supplements of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ways of preserving folk materials.

"Education of the Jeju dialect" was published by Educational department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in March 2007 and it was the first time in Korea. However, formal expressions and some wrong words were used there. In this paper, these kinds of problems are mentioned and some solutions are given to improve "Education of the Jeju dialect" as an effective educational material.

Dialect education can give us a chance to use spoken language according to circumstances. Using dialects in daily life is following the trend of era of local government and it is a good way to preserve and hand over dialects.

- Key words: dialects, dialect education, educational materials, spoken language, preserve, hand over